

통일 염원 깃든 평화의 땅을 걷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글 윤혜원 사진 조채은

1950년 6·25 전쟁의 비극이 여전히 남아 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 임진각.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인 평화누리공원을 소개한다.



자유와 평화의 출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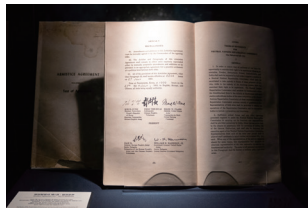
포근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초여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바람의 언덕'에는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다. 소풍 온 아이들은 드넓은 공원 위를 뛰어다니며 자유를 만끽한다. 약 14만 평의 대규모 관광지인 이곳은 다양한 전쟁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 통일안보 관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납북자들의 추모를 위해 건립된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군상황실 체험이 가능한 군사시설 '지하벙커 전시관 BEAT 131' 등 우리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리한다.

예술로 표현한 전쟁의 아픔

얼핏 보면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곳이자 평화로운 가족공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곳곳에서 분단국가의 아픔과 평화를 염원하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공원 초입에 있는 '평화의 발'이 그렇다. DMZ에 맨발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의 형상은 북한의 8.4 DMZ 지뢰도 발로 밟은 장병의 다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다. DMZ 작전에 참여했던 육군 용사들의 군인정신과 전우애를 기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외에도 철근과 대나무를 이용해 마치 사람이 걸어 나오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통일부르기', 통일된 미래를 향해 힘차게 흘러가는 희망을 표현한 수도꼭지 모양의 'Water-history' 등 다양한 조형물이 평화누리공원을 지키고 있다.





평화곤돌라 운영 안내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임진각로 148-73 (마정리) 2층

🕒 9:00 ~ 18:00 (주말 19:30)

📅 휴무 3월 4일 (국가 안전점검일)

6월·9월·12월 첫 번째 월요일 (정기 안전점검일)

* 캠프그리브스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 031-952-6388

곤돌라 타고 떠나는 민통선 여행

임진각에서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민간인 통제선 안까지 통하는 '평화곤돌라'를 타고 '캠프그리브스'에 방문해 보자. 비무장지대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곳으로, 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캠프그리브스는 미 육군 2사단이 1953년부터 2004년까지 주둔한 장소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도 이름을 알렸다. DMZ체험관, 기획전시관, 다큐멘타관, 탄약고, 산책로,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아쉽게도 다른 시설물들은 촬영대관 혹은 단체관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촬영 당일엔 갤러리그

리브스만 방문할 수 있었다. 갤러리그리브스는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볼링장을 재단장해 전시관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공간이다. 현재 <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젊은 날>과 <세계의 선> 전시가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는 전쟁 당시 징집된 학도의용군의 이야기를, 나머지 공간에서는 정전협정서 지도 위에 그려진 세 개의 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는 평화에 대해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 말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임진각, 그리고 캠프그리브스에서 자연 속 DMZ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